

# 장흥 천관산 동백숲 '2021년 방문해야 할 명품숲' 선정

### 전남도 계절별 12선 중 2위...호남 5대 명산 1993년 도립공원 지정 관산읍 부평리 산 109-1번지 일원 약 20ha 조성 국내 최대 균라식

장흥군 천관산 동백숲이 '2021년 방문해야 할 아름다운 명품숲 12선'에 선정됐다.

장흥군은 전남도가 선정한 '2021년 방문해야 할 아름다운 명품숲 계절별 12선' 가운데 2위를 차지해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지역 내 잘 알려지지 않은 아름답고 가치 있는 숲을 발굴해,

서류 검토 및 온라인 투표, 현장심사 등을 거쳐 계절별 12선과 최종 우수 대상지 3곳을 선정했다.

호남의 5대 명산으로 유명한 장흥군의 천관산은 1993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됐다.

장흥군 관산읍과 대덕읍에 걸쳐 있는 천관산은 가을철에는 아름다운 '역새평원'과 '기암괴석'이 어우러져

장관을 이룬다. 멀리 보이는 다도해의 아름다운 풍광도 전국 등산객들이 꼽는 매력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천연의 보물과 같은 천관산 동백숲은 관산읍 부평리 산 109-1번지 일원의 약 20ha에 국내 최대 동백나무 군락지다.

20년생 ~ 2000년생 동백나무 2만 여 그루가 자생하며, '순림형'으로 식물분

포학적 가치가 높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동백숲은 천관산 봉우리 중 하나인 양암봉(464m) 하단 계곡을 따라 길게 띠 모양으로 형성돼 있다.

지역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천관산 동백숲 보존회'를 결성하여 숲의 보존에 힘쓰고 있다.

정중순 장흥군수는 "천관산 동백숲은 '맑은 물 푸른 숲 장흥'을 대표하는 보물 같은 숲"이라며 "지속적으로 보존가치 있는 숲을 가꾸어 나가는데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기동취재본부



## 완도군, 294억 원 투입 체육시설 확충 박차

### 군민 건강증진·생활체육 활성·전지훈련·대회 유치 등 기대효과 커



완도군 다목적 실내체육관 조감도

완도군은 군민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가용리에 다목적 실내체육관과 군외면에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등 체육시설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완도를 가용리 체육공원 내에 조성 중인 다목적 실내체육관은 20년 된 농어민문화체육센터가 협소 및 노후되고 국제규격에 미달되어 다양한 행사 유치가 어려워짐에 따라 새로운 시설

건립 필요성이 제기되어 19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한다.

다목적 실내체육관은 지상 2층, 연면적 7,136㎡, 관람석 1,181석 규모로 조성되며 지난 7월 착공, 내년 12월 준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체육공원 주차난 해소를 위해 24억 원을 투입하여 222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터워드 신축하고 있다.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준공되면 군

민 건강 증진을 위해 배구, 농구, 배드민턴 등을 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로 활용은 물론 전지훈련 및 2023년도에 개최 예정인 전남도민체전 등 대규모 체육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외면에는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가 들어선다. 군외면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5억 원을 투입, 원동리에 건립하고 있다.

지상 1층, 연면적 999㎡ 규모로 조성되며 지난 6월 말에 착공하여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아울러 도서지역 주민들의 체육 복지를 위해 노화읍(30억)과 청산면(25억)에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를 내년 말까지 건립할 계획이다.

또한 보길면에는 19억 원을 투입, 부항리 일원에 운동장과 다목적 구장, 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갖춘 체육공원도 조성 중이다.

완도=김광수 기자

## '고려청자 최대 생산지' 강진 사당리 청자 요지 현장 설명회

### 9일 오후 3시 현장 공개...최고급 청자생산 비밀 단초

강진군은 국가사적 제68호로 지정된 '강진고려청자요지' 중 사당리 3, 4차 발굴에 대한 자문회의 및 현장 공개 설명회를 오는 9일 오후 3시 고려청자박물관 시청각실과 발굴조사 현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강진군은 고려청자 전성기의 생산 체계를 규명하기 위해 청자 생산의 핵심장소인 사당리 23호 일원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연차적으로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9년 1차·2차 발굴조사에서는 국내 최초로 초벌품을 전문 생산한 '다원형의 벽돌 가마(일명 만두형 가마)'와 '고려청자 선별장'이 확인돼 학계의 주목을 끈 바 있다.

이번 3차·4차 발굴조사에서는 대규모 관청터와 공방터가 대대적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고려시대 최고급 청자 생산의 비밀을 밝힐 단초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강진군은 평가하고 있다.

관청터는 담장을 경계로 좌우에 2곳의 건물지가 '·'자형으로 조사되었다. 주변으로 청자 매병과 청자 '大平'銘 수기와 등 수 만점의 고급청자 편이 출토되는 청자 선별장이 있어 최고급 고려청자를 선별하고 관리 감독하였던 장소로 해석되고 있다.

공방터는 관청터가 조성된 대형 축대 남쪽에 분포한다. 방형으로 구획된 기단 위에 연토장(태토를 저장한 곳), 물레 축혈(물레를 놓았던 곳), 건조장

(성형한 그릇을 건조하는 곳) 등이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전성기 고려청자 생산 공정을 규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2019년과 2020년 4차례에 걸쳐 거두어드린 발굴성과를 활용하여 보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추후 연차적인 학술대회와 조사를 통해 고려청자의 진정성을 규명해 세계유산 등재를 적극 추진하는데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공개 설명회에서는 2차~4차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관청터와 선별장, 공방터 등 유적을 공개하고 출토된 청자들을 전시, 전문가와 지역민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강진=김영일 기자

## 진도군, 14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 단속

진도군이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운행되는 경유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 단속은 통행중인 차량을 정차시켜 점검자가 점검대상 차량에 탑승해 측정, 검사하는 정차식 방식

또는 버스터미널 차고지 등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단속 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해야 한다.

진도=조성용 기자

## 해남군 쇼핑몰'해남미소'매출 100억 달성 역대 최고 매출 기록...'공무원 직영운영 신뢰 높여'

해남군 직영 온라인 쇼핑몰'해남미소'가 매출 100억원을 돌파했다.

직영 9년만에 최고 매출로, 11월 말 기준 100억 5,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해 이미 2019년 전체 매출액 53억원을 뛰어넘어 100% 가까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12월에는 주력상품인 절임배추의 판매가 대폭 증가하는 만큼 올해 목표

액 100억원을 훨씬 상회하는 매출액을 거둘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해남미소의 매출 100억원 달성은 전국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중에서도 손꼽히는 기록으로, 직영 운영으로 전환한지 9년만에 지자체 최고의 온라인 쇼핑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대부분 지자체가 위탁을 통해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비해 해남군은 해남미소 전담팀을 꾸리고, 공무원들이 직접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내실을 기해온 점이 특징이다.

상당과 주문, 고객 맞춤형 꾸러미 제작 등 쇼핑몰 운영의 모든 과정을 철저한 관리하에 진행하면서 최상의 상품만을 판매한다는 인식을 꾸준히 심어왔다. 공무원 운영을 통해 절감된 위탁 운영 비용은 입점 수수료료를 낮추는데 환원하면서 농여가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한 점도 큰 호응을 얻었다.

기동취재본부

# 책과 함께 즐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